

YTN 유라시아를 다녀오다~!

송병준 YTN 정보시스템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20일간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러시아부터 베를린까지 가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취재 지원을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다. YTN에서도 11명의 인원이 가는 대규모 출장은 처음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출장에서는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의 취재, 라이브 중계 및 다큐 제작까지 해냈어야 했다. 필자는 그중에서도 영상전송 및 LTE를 이용한 중계 등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출장은 준비부터 만만치 않았다. 일단 일정의 절반을 기차에서 생활해야 했는데 많은 방송장비를 충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전력 사정이 우려스러워 코레일과 외교부를 통해 기차 내 정확한 전력사정을 알아봐 달라고 했지만 그것마저 쉽지는 않았다. 임시로 사용할 소형 발전기도 생각해봤지만 무게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일단 비상용으로 캠핑용 배터리팩 2개 정도를 구매하고 나머지는 현장사정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하나 걱정스러웠던 건 러시아 현지의 통신 상황이었다. 소치올림픽 당시의 중계 상태를 보서는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단 LTE 중계 업체에 연락해서 현지에서 장비와 통신모뎀 임대여부를 알아봤다. 일단 임대는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고 그 이후로는 현지 통신상태 체크에 들어갔다. 모스크바에 있는 현지 업체 사람을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 우리가 실제로 중계할 포인트에서 속도 테스트를 진행했다. 역과 주변지역 곳곳을 테스트한 결과 통신 상태는 의외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그 이후 러시아 출장 준비는 순조롭게 준비됐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혀 예상이 안 됐기에 이제는 현장에서 부딪혀 보는 방법 밖에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출발날이 왔다.

YTN 출장팀은 다른 참가자들과 같이 남선(베이징)과 북선(블라디보스토크)팀으로 나뉘어 출발을 했다. 필자는 북선팀에 합류하여 블라디보스토크로 출발했다. 3시간의 짧은 비행을 마치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고 숙소로 가는 버스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봤는데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다음날 바로 중계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숙소로 도착하자마자 LTE 중계기를 인도받고 바로 테스트에 들어갔고 NQC실에서 OK! 사인을 보내왔다. 드디어 원정대가 20일간 타게 될 기차가 블라디보스토크 역에서 도착했고 출발 전 원정대의 출정식과 함께 러시아에서의 첫 중계를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베를린을 향해 출발했다.

20일의 거의 대부분을 기차에서 보내고, 중간중간 거점도시에 내려 1~2일 정도 머무르고 다시 기차를 타는 날이 계속되었다. 기차 안에는 샤워 시설이 없고 게다가 우리가 생활한 4인용 침대칸은 좁은 공간에 카메라와 기타 방송장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다행히 우려했던 러시아 열차 내 전원 사정은 큰 문제가 없었다. 다만 모스크바에서 베를린 가는 열차는 전력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열차 안에서 노트북을 이용할 때 준비해간 배터리팩을 요긴하게 사용했다. 러시아의 도시에서는 통신상황이 좋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열차 이동 중에는 통신이 불가했고 어떤 구간에서는 전화마저 안 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시청자에게 러시아의 여름과 기차생활 등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줘야 했기에 열차 안에서는 리포트를 만들고 15~30분 정도 쉬는 정차역에 도착하면 열차에 내려 LTE 중계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로 또는 실시간 영상으로 보내기를 반복했다. 한 번은 파일로 본사에 2분짜리 영상을 송출해야 하는데 정차 시간이 짧아서 하나의 파일로 보내면 시간 내에 전송이 완료되지 않을 것 같아 영상을 10초 간격으로 끊어 파일로 만들어서 보낸 적도 있다.

그리고 이번 출장 때 알게 된 점은 LTE 중계기의 핫스팟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할 때와 비디오 신호를 보낼 때 속도 차이가 나는 걸 느꼈다. 비디오 신호를 보낼 때는 5Mbps 이상이 나오는데 핫스팟을 이용해서 파일을 전송하면 1.5Mbps 정도 밖에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무선 AP 성능뿐 아니라 내부적인 프로세스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이렇게 YTN은 러시아 바이칼 호수, 모스크바 레닌광장, 폴란드 바르샤바, 독일 브란덴부르크 등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장소에서 중계를 해가면서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은 다른 방송사나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기다려 보기로 한다. 📡

